

WTO 가입 후 중국 섬유산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金周永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I. 머리말	IV. 한·중 섬유산업의 경쟁력 비교
II. 중국 섬유산업 발전 현황	IV.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III. 중국 섬유산업 수출입 환경 변화	V. 맺음말

요 약

중국의 섬유산업은 9차 5개년 계획기간(1996~2000년) 동안 섬유제품 수출이 2,09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1.8%를 차지함으로써, 수출 효자산업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섬유산업은 여전히 낮은 노동생산성, 소규모 위주의 기업구조, 취약한 신제품 개발능력, 진입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2005년)에도 섬유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할 예정이다. 더욱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섬유산업의 수출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5년의 과도기 기간이 경과한 2005년에는 섬유제품 평균 관세율이 현행 20.25%에서 11.64% 수준으로 인하된다. 다음으로 비관세장벽이 크게 완화되는데, 그 동안 수출입 상품에 대해 자율적·피동적으로 실시해왔던 쿼터와 수출입 허가증 관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또한, 대외무역권의 확대 부여로 WTO 가입 3년 후부터 모든 기업에 대외무역권이 부여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교역을 토대로 섬유제품의 경쟁력을 무역 특화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은 高비교우위 제품이 총 14개 품목 가운데 식물성 방직섬유, 편물의류, 비편물 의류 및 모포·텐트·천막의 방직용 섬유제품 등 4개인 데 반해, 한국은 침투·도포 및 산업용 섬유제품, 메리야스 및 편물제품 등 2개에 불과하다.

산업내 무역정도를 분석한 결과, 산업내 무역이 발달한 상품으로는 양모, 양탄자, 면화, 인조 스테이플 섬유, 부직포 등으로 나타났는 바, 인조 스테이플 섬유를 제외하고는 양국 교역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우리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로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섬유제품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는 주요 수출품인 인조 필라멘트, 인조 스테이플 섬유 외에 침투·도포 및 산업용 섬유제품, 메리야스 및 편물제품의 4개 품목인 데 반해, 중국은 실크, 면화, 식물성 방직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 특수직물, 의류, 모포·텐트·천막의 방직용 섬유제품 등 8개 품목이며, 나머지 품목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중국 섬유제품, 특히 의류 등 완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1996년중 연평균 9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제품 순수출이 우리기업의 對중국 섬유산업 투자 감소, 중국 섬유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1998년부터 감소세로 반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의 섬유제품 교역에서 1996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순수출이 14억 달러로 對중국 흑자기여도의 28.2%를 차지하였는데, 2001년 1~11월에는 순수출이 1억 5,600만 달러로 흑자기여도는 1.5%에 불과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산업 투자는 2001년 11월말 현재 1,114건에 6억 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와 금액면에서 각각 19.4%와 12.1%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의 대부분이 1996년 이전에 투자된 것이고, 투자지역도 산둥성(山東省) 등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지리적 인접과 수출시장을 고려한 투자가 많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제품 수출은 섬유제품의 對중국 투자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부자재 수출, 완제품의 국내반입 및 제3국 수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2005년부터 쿼터 규제 철폐, 민간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 부여 및 진입 제한 폐지 등으로 중국 섬유제품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다음 몇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3국 시장 개척을 도모한다. 둘째,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관세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합성섬유와 합성섬유 원자재 시장 개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셋째, 개인주택 소유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커튼·소파에 사용되는 고급 장식용 직물, 공업 발전에 따른 산업용 직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디자인 및 염색 기술 수준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에 직물 원단을 수출하고,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완제품 생산 전략을 고려한다. 다섯째, 개방 확대, 인터넷 보급,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의류의 개성화 조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다품종 소량생산 및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여 내수시장을 개척한다. 여섯째, 실크, 면화 등 풍부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방직·방직공정을 실시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디자인 및 염색 가공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2005년 세계 의류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될 중국산 의류제품 중 일정 부분을 우리 투자기업의 제품이 차지함으로써, 우리 섬유제품의 위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 머리말

중국의 섬유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섬유산업¹⁾은 중국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보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9차 5개년계획 기간(1996~2000년) 동안 섬유제품은 최대 수출품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 상품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수출의 확실한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과거 경제성장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외화 획득원이었던 섬유제품의 해외시장을 점차 중국 제품이 잠식하였다. 더욱이 한·중 양국간의 교역에 있어서도 점차 중국 의류제품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 민간기업 등에 대한 대외무역권한의 확대 부여, 2005년부터 직물 및 의류협정(ATC)에 의거한 쿼터 폐지 등으로 인해 중국 섬유산업은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섬유산업 발전을 개괄해 보고, WTO 가입으로 변화되는 관세·비관세 장벽 및 대외무역권한 등과 관련된 중국의 수출입환경을 살펴본 다음, 한·중 섬유제품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한 후,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중국 섬유산업 발전 현황

1. 섬유산업 현황

개혁·개방 이후 섬유산업의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중국은 면사·면직물·견직물·생사·화학섬유·의류 등의 부문에서 세계 1위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1996~2000년 기간 중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품 수출액이 2,09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9,617억 달러의 21.8%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섬유제품의 순수출액이 1,306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이 기간 중 상품수지 흑자 규모의 87.4%에 달하였다.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최대이점인 가격과 규모의 경제를 십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개혁·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섬유산업은 공급과잉, 낙후된 기술수준, 국유기업의 과도한 인력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섬유산업 분야의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기업 구조조정의 주된 내용은 면방 생산능력 및 인력 축소, 인수·합병, 효율이 낮은 기업의 파산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면방과 모방 생산능력이 940만 방추와 28만 방추씩 축소된 것 외에 140만 명의 인력이 감원되었으며, 그 결과 1996년 106억 위안(12.8억 달러)에 달했던 국유 섬유기업의 순수실이 2000년에는 67억 위안(8.1억 달러)으로 크게 축

1) 본고에서는 HS분류 코드번호 50~63을 의미함.

소되었다.²⁾ 구조조정의 효과는 단지 생산 효율 제고에 그치지 않았다. 화학섬유의 경우 추가로 연산 300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이 증대됨으로써 일부 기업은 규모의 경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 섬유 산업의 발달로 의류 등 완제품 수출이 1995년에 비해 5% 포인트나 증가하여 전체 섬유제품 수출의 70%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힘입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스자좡(石家莊)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³⁾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섬유산업의 문제점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섬유산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신제품 개발능력이 취약하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중·저가품 위주로 대량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데다 완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무역 방식이기 때문에, 자가 브랜드가 없고 품질·품종·고급화 등의 측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능성 섬유·방향성 섬유·탄소섬유 등 특수섬유에 대한 연구개발 시스템과 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태이

다. 특히, 중국은 화학섬유 및 고급 원단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아크릴·나일론·테릴론 섬유 등의 수입 의존도가 각각 42%, 30%, 17%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노동생산성이 낮다. 비록 1998년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면방직 설비 가운데 2/3가 1980년대 이전의 설비이고 모방직이나 염색 분야의 설비도 10% 정도만이 선진국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 방직산업의 경우 설비자동화에 따른 생산효율 제고로 방추 1만개당 60명이 투입되는 반면, 중국은 300명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많아 산업 집중도가 낮고 시장 경쟁력이 약하며, 이는 결국 리스크 관리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화학섬유를 예로 들면, 1999년 화학섬유 기업의 평균 생산규모는 1.3만 톤으로, 연산 10만 톤 이상 기업은 고작 7개에 불과하며, 이들의 생산능력이 전체의 22.6%를 차지한다. 또한, 비록 소규모 생산기업이 많지만 다품종 소량, 신속한 납기, 고급화 등 섬유업체의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등 시장적응 능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관리정책의 실시이다. 이는 주로 면화, 실크 등의 유통분야에 대한 진입 제한과 수출입 허가증 관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2) 특히 이들 기업 대상으로 한 채무주식화(債轉股) 등의 실시로 섬유부문의 평균부채비율은 1995년 267%에서 2000년 194%로 낮아졌고,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전체의 32.1%에서 20.6%로 축소되었음.

3) 중국에는 현재 섬유업체 중 연간 수출실적이 3,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159개사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上海服裝集團, 萊織華實業集團, 杉杉集團, 上海三槍集團, 雅戈爾集團, 紅豆集團, 江蘇虎豹集團, 湖北美爾雅紡織服裝實業集團, 上海海螺集團, 江蘇康博集團 등을 들 수 있음.

<표 1>

10·5 계획의 섬유산업 주요 목표

	2000	2005	비고
섬유산업 총생산액	2,678 억 위안	4,300억 위안	연평균 6.5% 증가
섬유제품 수출액	494억 달러	700억 달러	
의류·장식·산업용 비중	67%: 20%: 13%	64%: 21%: 15%	
노동생산성	2.5만 위안/명	3.5만 위안/명	

자료: 紡織工業 '十五'規劃

3. 10차 5개년 기간 동안의 섬유산업 발전 방향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섬유산업은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10차 5개년계획 기간(2001~2005년) 동안 섬유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량을 통한 섬유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집중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방직은 1,000만 방추의 생산능력에 대한 기술개량을 통해 생산설비의 60%를 1990년대 기술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모방직은 모방 원자재 품질수준의 고급화로 고급모방 비율이 전체의 70%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섬유는 연산 10만 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진 기업을 20개 수준으로 늘려 화학섬유의 집중도가 60% 수준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그밖에 염색기술 제고, 의류 디자인 기술 향상 및 산업용 직

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섬유산업 생산액을 연평균 6.5% 증가시키므로써 섬유산업 생산액이 2000년의 2,678억 위안(32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4,300억 위안(520억 달러)에 이르도록 하는 한편, 섬유제품 수출도 2000년의 49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과거 국유기업에만 부여하던 섬유 관련 수출 및 수입 쿼터를 국유 및 민간기업에 동등하게 부여하는 한편,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섬유 관련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의 해외투자도 적극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중국 섬유산업의 수출입 환경 변화

1. 관세 인하

중국의 WTO 가입으로 5년의 과도기

4) '2002년 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2002年出口許可證管理商品目錄)'에 의하면, 2002년에 총 54종류 332개 품목(HS 8자리 기준)에 대해 수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수출 허가증 대상품목은 쌀, 밀, 면화, 생사, 실크 원단, 면 원단, 원유, 석유제품, 희귀 금속 및 광물 등임. 한편, '2002년 수입 허가증관리 상품목록(2002年進口許可證管理商品目錄)'에 의하면, 2002년에 12종류의 17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리를 하고 있음. 수입 허가증 대상 품목은 주로 석유제품, 천연고무,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및 그 부품, 오토바이 및 그 부품, 카메라, 시계, CD-ROM 생산설비 등임.

〈표 2〉 연도별 섬유제품 관세율 인하 계획

단위: %

HS 분류코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0-63 평균	20.25	17.75	15.33	12.99	11.64	11.64	11.64	11.64
50	17.35	14.39	11.43	8.93	8.93	8.93	8.93	8.93
51	16.46	14.03	11.59	9.49	8.27	8.27	8.27	8.27
52	13.14	11.16	9.61	8.52	8.52	8.52	8.52	8.52
53	9.53	8.60	7.88	7.21	7.21	7.21	7.21	7.21
54	19.50	16.16	12.82	9.48	7.39	7.39	7.39	7.39
55	21.56	18.26	15.03	11.82	9.10	9.10	9.10	9.10
56	19.01	16.25	13.49	10.74	8.67	8.67	8.67	8.67
57	24.23	21.55	18.88	16.20	14.62	14.62	14.62	14.62
58	21.81	18.77	15.74	12.71	10.36	10.36	10.36	10.36
59	15.78	13.92	12.17	10.53	10.00	10.00	10.00	10.00
60	21.12	18.27	15.43	12.58	10.57	10.57	10.57	10.57
61	23.57	21.33	19.09	16.85	15.53	15.53	15.53	15.53
62	24.16	21.92	19.68	17.43	15.91	15.91	15.91	15.91
63	22.81	20.28	17.76	15.23	14.59	14.59	14.59	14.59

자료: www.ced.com.cn

〈표 3〉 연도별 합성섬유 원자재 관세율 인하 합의 내용

HS 분류코드	2001년 세율(%)	WTO 가입시 합의세율(%)	최종연도 합의세율(%)/ 실시시기(년)
29053100	12	10.5	5.5/2004
29261000	10	6.5	6.5/2004
29337100	16	12.5	9.0/2003
29173610	14	13.9	6.5/2008
39076011	16	13.9	6.5/2008
39076019	16	13.9	6.5/2008
29212210	8	6.5	6.5/2008

자료: www.ced.com.cn

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⁵⁾되며, 이에 따라 섬유제품의 평균 관세율도 현행 20.25%에서 2005년까지 11.64% 수준으로 인하되며, 이중 면사·생사 및 섬유 등(HS 분류코드 50~56)의 관세율은 현재의 평균 16%대에서 8%대 수준으로 인하되고, 직물 및 의류

등(HS 분류코드 57~63)은 현행 22% 수준에서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WTO 가입 의정서에 의하면, 합성섬유 원자재 세율은 현행 평균 13%에서 2005년 기준으로 6%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합성섬유 완제품 세율은 현행 16% 수준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⁶⁾

5) 중국은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현행 12%에서 10% 수준(공산품 평균 9.4%, 농산품 평균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됨.

6) 합성섬유 원자재는 유기화합물(HS29)과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39)으로 분류되는 것들로 주로 에틸렌글리콜, 아크로니트릴, 폴리에스테르, PTA 등이며, 합성섬유는 인조 펠라멘트(HS54)와 인조 스테이플 섬유(HS55)의 테릴론 단·장섬유, 아크릴 단·장섬유, 나일론 단·장섬유, 폴리프로필렌 단섬유 등임.

HS 분류코드	2001년 세율(%)	가입시 합의세율(%)	최종연도 합의세율(%)/ 실시시기(년)
54022000	17	14.6	5/2004
54023310	21	17.0	5/2005
54023390	17	14.6	5/2004
54024200	16	14.0	5/2004
54024300	16	14.0	5/2004
54025200	19	14.6	5/2004
55012000	18	13.4	5/2004
55032000	18	13.4	5/2005
55062000	18	13.4	5/2004
55013000	11	10.0	5/2004
55033000	11	10.0	5/2004
55063000	11	10.0	5/2004
54023190	14	12.2	5/2004
54023290	13	12.0	5/2005
55011000	17	12.2	5/2004
55031000	17	12.2	5/2004
55061000	17	12.2	5/2004
55034000	17	12.2	5/2004

자료: www.ced.com.cn

2. 비관세장벽 완화

WTO 가입으로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수출입 상품에 대해 자율적·피동적으로 실시해왔던 쿼터 및 허가증 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미국·EU·캐나다·터키 등이 직물과 의류 협정(Agreement on Textiles & Clothing: ATC)⁷⁾에 의거하여 양모와 화학섬유에 대한 수입쿼터를 2002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를 폐지하였다.

7)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에 의거, 그 동안 중국은 상기 국가들로부터 섬유제품 쿼터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방직품에 대한 수입쿼터 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ATC)함에 따라 2005년부터는 ATC에 의해 방직품에 대한 쿼터 규제가 철폐됨.

ATC에 의하면,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995년부터 3단계로 쿼터를 폐지기로 하였으며, 1단계는 1995~1997년으로 16%를, 2단계는 1998~2001년으로 17%를, 그리고 3단계는 2002~2004년으로 18%를 폐지하며, 2005년부터는 쿼터를 완전 폐지기로 하였음. 다만 미국은 방직품 수입 급증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WTO 가입을 위한 양국간 쌍무협약에서 중국으로부터 추가로 4년의 쿼터 실시 유예기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對미국 섬유제품 수출쿼터는 2009년 1월부터 완전 폐지됨. 또한 미국과는 2008년까지 의류 및 면방직 제품 수출물량을 연 7.5%와 6%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의하였음.

ATC에 의한 단계별 자유화품목은 絲(tops & yarns), 직물(fabrics), 섬유제품(made-up products), 의류(clothing)로 구성되며, 각국은 자국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중심으로 먼저 개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국시장에 민감한 품목을 개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원자재를,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의류를 개방품목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짐.

〈표 5〉 WTO 가입과 동시 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 폐지 품목⁸⁾

51011100, 51011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51051000, 51052900, 52010000, 52030000, 54022000, 54023310, 54023190, 54024200, 54024300, 54024990, 54025200, 54025990, 54026200, 54026990, 54033310, 54041000, 55012000, 55013000, 55020010, 55032000, 55033000, 55062000, 55063000, 55092100, 55092200, 55093100, 55093200, 55095100, 55095200, 55095300, 55095900, 55096100, 55096200, 55096900
--

주: HS 분류기준
자료: www.ced.com.cn

금번 쿼터 적용 폐지 품목은 전체의 30%⁸⁾이며, 나머지는 2004년 말에 완전 폐지된다. 한편, 이들 제품에 대한 쿼터 적용 폐지로 인해 향후 EU와 터키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그 동안 구조조정 차원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하게 규제해 왔던 화학섬유·모방 분야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게 된다. 다만, 화학섬유

의 투자비율 제한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차 5개년 계획요강 및 WTO 가입 의정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역·수량·투자비율의 제한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도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중국은 섬유제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에서 장려산업·제한산업⁹⁾으로 나누어 유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표 6〉과 같다.

〈표 6〉 중국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중 섬유제품 분야

장려 분야	제한 甲 분야	제한 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섬 방직용 목재펄프(연산 10만 톤 이상) · 산업용 특수 방직물 · 인조 합성섬유 및 고급 직물 염색 및 가공 · 방직용 염색 용 화학원료 생산 · 100% 전량 섬유제품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칩을 사용하는 화섬 방사 · 생산 라인당 생산능력이 연간 2만 톤 이하의 레이온 스테이플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방직, 면방직 · 생사, 실크 웨이스트 · 인조화섬, 방향섬유, 탄소섬유(외국인 단독투자 불가) ·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섬유, 스판덱스 섬유(외국인 단독투자 불가)

자료: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8) 2002년부터 쿼터 규제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전체 275개 가운데 83개임. 이들 83개 쿼터 규제 대상 품목의 2000년 수출액은 4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쿼터 적용을 받는 섬유제품 수출액의 32%에 해당됨. 이 가운데 이번 미국과 EU의 쿼터 적용 배제품목의 수출액은 각각 20억 달러와 21억 달러로, 미국과 EU로부터의 쿼터 적용 대상품목 수출액의 35%와 31%를 차지함. 9) 중국은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제한 분야를 제한 甲과 제한 乙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한 甲은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고, 국내시장에서 공급과잉이거나 기술개발이나 기술도입이 완료된 분야이며, 제한 乙은 장려분야로 분류할 경우 급속한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수급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분야임.

9) 중국은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제한 분야를 제한 甲과 제한 乙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한 甲은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고, 국내시장에서 공급과잉이거나 기술개발이나 기술도입이 완료된 분야이며, 제한 乙은 장려분야로 분류할 경우 급속한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수급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분야임.

그러나 모방직·면방직·화학섬유 분야는 2000년 수정된 '현재 국가가 중점적으로 장려 발전하는 산업·제품과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다, 비록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제한 乙'로 분류되어 중앙정부 관련기관의 인가를 얻어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한편, 비관세장벽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누에고치·면화 등 소수 품목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지도가격)을 실시함으로써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 이는 이들 품목이 2001년 기준으로 생산량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 수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대외무역권 범위 확대

WTO 가입 3년 후부터 모든 기업에 대외무역권이 확대 부여된다. 먼저 WTO 가입 당해연도부터 내·외자기업 모두 대외무역권 취득 요건이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수출실적, 외환수지 균형, 은행신용 상황, 이익실현 여부 등 요건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¹⁰⁾ 먼저 WTO 가입 1년 후부터 합자기업으로 중국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이 부여되고, 가입 2년 후부터 외자기업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합자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가입 3년 후부터는 모든 외자기업에게 대외무역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자기업에는 투자 비준시 인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수출입 활동이 가능한 제한적인 대외무역권이 부여된다. 인가된 범위내에서의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도·소매 등의 유통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표 7〉 WTO 가입 3년 후부터 자유화되는 품목^{*)}

51011100, 51012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51051000, 51052100, 51052900, 54023910, 54023990, 54024910, 54024920, 54024990, 54025910, 54025990, 54026910, 54026920, 54026990, 55013000, 55033000, 55063000, 55093100, 55093200, 55096100, 55096200, 55096900
--

주: HS 분류기준

자료: www.economicdaily.com.cn

〈표 8〉 수출입 자유화 실크 품목^{*)}

50010010, 50010090, 50020012, 50020013, 50020019, 50020020, 50020090, 50031000, 50039000, 50040000, 50050010, 50050090, 50071010, 50072011, 50072021, 50072031
--

주: HS 분류기준

자료: www.economicdaily.com.cn

10) 외자기업으로 생산활동 종사기업은 생산활동 관련하여 대외무역권이 자동 부여되지만, 내자기업은 대외무역권을 신청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최저 등록자본금이 WTO 가입 1년 후 500만 위안(60만 달러), 2년 후 300만 위안(36만 달러), 3년 후 100만 위안(12만 달러)으로 인하됨. WTO 가입 3년 후부터 내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 발급을 위한 심의제도가 폐지됨.

〈표 9〉 면화 관세할당 내용

	관세할당량	할당관세	초과세율
가입 초기	74.3만 톤	1%	76%
2004년부터	89.4만 톤	1%	40%

자료: www.economicdaily.com.cn

없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은 자사제품 판매는 물론 모기업 및 계열사의 제품도 판매 가능하다. 다만, 외자기업으로 인가된 범위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당해 상품에 대해 직접 도·소매 등 유통행위를 할 수 없다.

과도기 동안 수출입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양모, 나일론 등의 품목(〈표 7〉, 〈표 8〉 참조)에 대해 자율적인 쿼터규제를 실시하여 수출입공사로 하여금 전담 수입토록 하였다. 그러나 과도기 중 점진적으로 이의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기업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WTO 가입 3년 후부터는 완전 자유화한다. 따라서 WTO 가입 3년 후부터 내·외자기업 모두 〈표 7〉, 〈표 8〉의 양모와 화학섬유 품목에 대한 수출입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면화, 실크는 예외로 취급된다. 먼저 실크는 2005년 1월부터 수출입이 자유화되며, 실크 수출과 관련하여 징수되던 각종 준조세도 폐지된다. 과도기 동안 실크 원단의 쿼터 제한은 현행대로 실시되며, 생사(生絲)의 대외무역권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국은 2001년 10월부터 실크 원단 수출기업에 대한 자격 요건을 이미 폐지하여 대외무역권을 획득한 기업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음으로 면화는 관세할당 방식으로 운용된다. 면화 수출입 전담 기업은 수출입 공사와 일부 국유 방직기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라 금년부터 관세할당분의 67%가 기존 기업 이외의 기업에 배정되고, 가입 3년 후부터는 모든 기업에 완전 자유화된다.

IV. 한·중 섬유산업의 경쟁력 비교

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경쟁력 비교

한·중 양국 섬유산업의 분업형태 및 경쟁력을 고찰해 보기 위해서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무역특화지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C_i = \frac{X_i - M_i}{X_i + M_i}$$

이중 C_i 는 i 산업 특화지수로서, X_i 는 i 산업의 수출액이며, M_i 는 i 산업의 수입액이다. 양국 섬유산업의 특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상기 공식을 조정하여 구하고자 한다.

〈표 10〉

섬유제품의 한·중간 무역 특화지수 변화 추이

H S 분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11)
50	0.92	0.81	0.82	0.79	0.75	0.75	0.77	0.77	0.76	0.72
51	0.59	0.49	0.26	0.07	0.10	-0.12	-0.20	-0.05	0.05	-0.13
52	0.75	0.60	0.38	0.20	-0.09	-0.04	-0.07	0.25	0.30	0.13
53	0.88	0.75	0.64	0.72	0.71	0.70	0.60	0.72	0.76	0.82
54	-0.62	-0.66	-0.77	-0.73	-0.80	-0.75	-0.71	-0.73	-0.77	-0.78
55	0.17	-0.02	-0.06	-0.10	-0.29	-0.32	-0.39	-0.25	-0.28	-0.24
56	-0.83	-0.85	-0.77	-0.80	-0.72	-0.60	-0.73	-0.62	-0.50	-0.46
57	0.67	0.78	0.82	0.85	0.64	0.20	0.00	0.00	0.33	0.00
58	-0.42	-0.49	-0.48	-0.42	-0.28	-0.37	-0.47	-0.57	-0.68	-0.73
59	-1.00	-1.00	-0.97	-0.95	-0.96	-0.93	-0.98	-0.96	-0.92	-0.92
60	-1.00	-0.97	-0.96	-0.95	-0.97	-0.98	-0.96	-0.95	-0.93	-0.94
61	0.94	0.88	0.89	0.85	0.88	0.90	0.86	0.89	0.91	0.93
62	0.74	0.45	0.61	0.52	0.58	0.65	0.49	0.72	0.87	0.90
63	0.88	0.90	0.86	0.81	0.91	0.91	0.81	0.70	0.76	0.82
29	-0.24	-0.40	-0.38	-0.45	-0.42	-0.50	-0.70	-0.68	-0.76	-0.73
39	-0.91	-0.92	-0.92	-0.91	-0.93	-0.93	-0.96	-0.95	-0.93	-0.91

주: 수치가 +1에 접근할수록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1에 접근할수록 한국이 경쟁력이 있음.
 자료: KOTIS, 중국 '海關統計'를 이용 작성

$$\text{특화지수} = \frac{\text{중국의 對한국 A상품 수출액} - \text{중국의 對한국으로부터 A상품 수입액}}{\text{중국의 對한국 A상품 수출액} + \text{중국의 A상품 수입액}}$$

계산 결과가 1에 접근할수록 중국이 A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가져 한국에 대해 수직분업을 이루고, -1에 접근할수록 한국이 중국의 A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가져 중국에 수직분업을 이루게 되며, 결과가 0에 접근할수록 A상품에 대해 양국은 각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평분업 상태에 있게 된다.

양국의 교역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양국 무역통계 수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즉, 한국의 수입을 중국의 수출로, 중국의 수입을 한국의 수출로 보고 특화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기준은 HS 두 자리 분류에 의거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화지수

절대치가 0.8을 초과하는 품목이 1992년에 총 7개에 달했으며, 이중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직분업을 이루고 있는 품목이 4개로, 여기에는 실크(HS50), 식물성 방직섬유(HS53), 편물의류(HS61), 모포·텐트·천막의 방직용 섬유제품(HS63) 등이 있다. 한국은 부직포(HS56), 칩투·도포 및 산업용 섬유제품(HS59), 메리야스 및 편물제품(HS60) 등 3개 품목이 중국에 대해 수직분업 형태를 취하였다. 그런데 2001년 들어 총 6개 품목이 0.8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은 종전의 HS53, HS61, HS63 외에 비편물 의류(HS62)가 추가되어 총 4개이고, 한국은 HS59, HS60으로 2개로 축소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 섬유제품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특히 비편물 의류(HS62)의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크(HS50), 양

모(HS51), 면화(HS52), 양탄자(HS57) 등과 같이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품목도 있고, 특수직물(HS58)과 같이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품목도 있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품목에 대한 양국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다음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을 산업간 무역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의 무역특화지수 절대치가 0.8을 초과하면 高비교우위 상품, 0.5~0.8이면 中비교우위 상품, 0.0~0.5 사이이면 低비교우위 상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아울러 3년 동안 같은 단계에 두 번 이상이 있을 경우는 그 단계로, 3년간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을 경우 중간 단계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高비교우위 상품으로는 의류(HS61, HS62)가 있고, 中비교우위 상품으로는 실크(HS50), 식물성 방직 섬유(HS53), 모포·텐트·천막의 방직용 섬유제품(HS63) 등이 있다. 반면, 한국의 高비교우위 상품으로는 침투·도포 및 산업용 섬유제품(HS59), 메리야스 및 편물제품(HS60)이 있고, 中비교우위 상품으로는 인조 필라멘트(HS54), 특수직물(HS58) 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완제품인 의류와 식물성 섬유 원자재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화학섬유 및 편직물 등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양국 섬유산업을 산업내 무역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내 무역은 동종 상품이나 동등 기술을 갖고 있는 상품의 교역으로, 이러한 교역을 통해 상대국의 산업조직, 기술축진과 상품 차별화 등의 장점을 터득할 수 있고, 또한 교역상대국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한 산업내 무역지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loyd-H.G. Grubel Index를 사용하였다.¹¹⁾ 산업내 무역지수는 0~1사이로 지수가 클수록 산업내 무역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도 산업내 무역지수 결과를 몇 단계로 나누어 지수가 0.8보다 클 경우에는 산업내 무역이 발달한 상품, 지수가 0.5~0.8 사이인 경우 산업내 무역이 비교적 발달한 상품, 0~0.5 사이인 경우는 산업내 무역이 덜 발달한 상품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내 무역이 발달한 상품은 양모(HS51), 양탄자(HS57)이고, 산업내 무역이 비교적 발달한 상품으로는 면화(HS52), 인조 스테이플 섬유(HS55), 부직포(HS56)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인조 스테이플 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

11) 공식은 다음과 같음.

$$Bi = 1 - \frac{|Xi - Mi|}{Xi + Mi}$$

이중 Bi는 i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로서, Xi는 i산업의 수출액, Mi는 i산업의 수입액을 표시함. 분석 시 통상적으로 UN의 국제무역표준분류(SITC)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한·중 양국이 공히 HS 분류를 채택하고 있어, HS 분류를 이용하며 계산을 위해 적용한 방법은 <표 11>과 동일함. 산업내 무역지수는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표는 생략했음.

HS분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11)
50	1.94	2.57	1.78	1.82	2.41	1.68	1.33	1.40	1.48	1.94
51	0.29	0.46	0.48	0.39	0.38	0.42	0.31	0.34	0.25	0.37
52	0.45	0.78	0.60	0.55	0.58	0.41	0.43	0.63	0.58	0.65
53	0.94	1.21	1.34	0.97	0.80	0.33	0.26	0.34	0.32	0.26
54	1.92	2.38	2.61	2.90	2.77	2.77	2.57	2.59	2.66	2.60
55	3.09	3.62	3.73	3.26	3.10	2.79	2.41	2.31	2.29	2.11
56	2.17	2.52	2.63	2.31	2.34	1.90	1.86	2.09	2.12	2.25
57	1.14	0.65	0.49	0.36	0.64	0.62	0.42	1.25	0.75	1.03
58	1.39	1.95	2.11	2.16	2.47	2.26	2.17	2.66	3.02	3.49
59	1.07	1.67	2.28	2.67	2.97	2.16	2.34	2.72	3.30	3.58
60	1.54	1.77	1.87	2.21	2.63	2.56	2.51	2.60	2.75	3.18
61	0.22	0.59	0.69	0.93	0.73	0.47	0.32	0.35	0.35	0.35
62	0.70	1.34	1.26	1.27	1.35	1.02	0.68	0.65	0.50	0.53
63	0.88	0.59	0.70	0.95	0.57	0.54	0.53	1.17	1.43	1.38
29	2.36	2.83	2.85	2.86	2.56	2.37	0.40	2.18	2.49	2.39
39	2.34	2.32	2.35	2.36	2.10	2.06	2.27	1.86	1.77	1.81

자료: KOTIS, 중국 '海關統計'를 이용 작성

입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들이다. 산업내 무역지수의 결과가 앞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해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한·중 양국의 섬유산업은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내 무역 발달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화학섬유 원자재인 유기화학품(HS29),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39)의 경우 한국이 꾸준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비교

다음은 양국 상품이 상대방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를 이용하였다. RCA지수는 무역구조와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며,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도 사용되는데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RCA = \frac{\text{甲국의 乙국에 대한 A상품 수입액} / \text{甲국의 A상품 총 수입액}}{\text{甲국의 乙국으로부터 수입액} / \text{甲국의 총 수입액}}$$

일반적으로 乙국 수출상품의 RCA 지수가 2.5보다 클 경우 매우 경쟁력이 높고, 1.25보다 크고 2.5보다 작을 경우 비교적 경쟁력이 있으며, 0.8보다 크고 1.25보다 작을 경우 보통의 경쟁력이 있고, 0.8 이하일 경우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12〉 중국 섬유제품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

HS분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11)
50	17.23	16.86	15.54	15.48	15.44	12.84	13.39	12.02	11.28	9.39
51	1.92	3.67	2.40	1.54	1.95	1.57	1.76	1.66	1.63	1.45
52	3.36	4.30	3.37	2.70	1.92	1.67	1.57	2.78	3.13	1.94
53	14.34	13.88	11.81	12.31	11.56	9.91	9.37	10.01	9.59	8.09
54	1.25	2.00	1.61	1.97	1.79	2.32	3.50	2.37	2.11	1.83
55	8.71	9.09	9.67	10.20	8.62	7.59	7.12	6.28	6.99	4.87
56	0.34	0.52	0.94	0.88	1.48	1.79	1.57	1.90	2.51	2.35
57	3.92	5.69	4.68	3.84	2.48	1.05	1.11	1.08	1.29	0.87
58	2.33	3.65	4.52	6.19	8.93	7.72	8.28	7.34	5.90	5.02
59	0.00	0.00	0.30	0.61	0.64	0.73	0.45	0.61	1.27	1.15
60	0.00	0.71	0.96	1.38	1.33	0.78	1.54	1.29	1.83	1.53
61	7.69	9.23	9.29	8.50	7.83	7.50	10.07	9.85	9.25	8.36
62	5.93	7.88	7.03	6.80	7.47	6.86	7.95	8.88	8.53	7.42
63	8.67	10.94	10.12	9.77	9.23	7.23	8.04	7.06	6.84	6.11
29	0.66	0.74	0.90	0.90	1.01	0.81	0.81	0.82	0.73	0.77
39	0.25	0.30	0.36	0.50	0.38	0.39	0.38	0.37	0.46	0.31

자료: KOTIS, 중국 '海關統計'를 이용 작성

〈표 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섬유제품 수출 상품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는 주요 수출품목인 인조 펠라멘트(HS54)와 인조 스테이플 섬유(HS55), 칩투·도포 및 산업용 섬유제품(HS59)과 메리야스 및 편물제품(HS60) 등이 있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품목으로는 양모(HS51), 면화(HS52), 식물성 방직섬유(HS53) 및 의류(HS61, HS62) 등이다. 경쟁력이 미미하지만 점차 상승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면화(HS52), 양탄자(HS57), 특수직물(HS58), 칩투·도포 및 산업용 섬유제품(HS59), 메리야스 편물(HS60), 모포·천막의 방직용 섬유제품(HS63) 등이다. 반대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는 식물성 방직섬유

(HS53), 인조 펠라멘트(HS54), 인조 스테이플 섬유(HS55), 의류(HS61, HS62)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데 반해, 수출규모가 작은 품목의 경쟁력은 오히려 소폭이나마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에 의하면, 중국 섬유제품 수출 상품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이 총 14개 품목 가운데 무려 8개에 이르고 있다. 실크(HS50), 면화(HS52), 식물성 방직섬유(HS53), 인조 스테이플 섬유(HS55), 특수직물(HS58), 의류(HS61, HS62), 모포·텐트·천막의

방직용 섬유제품(HS63)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품목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부직포(HS56), 침투·도포 및 산업용 섬유제품(HS59), 메리야스 편물(HS60), 의류(HS61, HS62)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들의 경쟁력이 더욱 가하던가 이다는 저이다. 반대로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경쟁력이 매우 높은 품목으로 신크(HS50) 이즈 스테이프 섬유(HS55), 특수직물(HS58) 및 모포·텐트·천막의 섬유제품(HS63)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섬유제품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의류 등 완제품에 있어서 더욱 확연하다. 그러나,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품목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1.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제품 수출 및 투자현황

가.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제품 수출현황

한·중 수교 이후 對중국 섬유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섬유제품 순수출이 1992~1996년중에는 연평균 9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섬유

제품 순수출이 14억 달러로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역에서 최고액을 기록하여 당해년도 對중국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28.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對중국 섬유제품 수출은 1998년부터 감소세로 반전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1년 1~11월중 對중국 섬유제품 순수출이 1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중국 상품수지 기여도가 1.5%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섬유제품의 對중국 순수출 축소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기업의 對중국 섬유산업 투자 감소를 들 수 있다. 우리기업의 對중국 섬유산업 투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이 이루어졌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총 투자에서 섬유산업 투자가 31.4%를 차지한 이후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외환위기 기간 중에는 무려 3%대까지 축소되었다. 2001년 들어 비중이 12%대로 다시 확대되고 있지만 총 투자에서 섬유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우리기업의 對중국 섬유산업 투자는 원·부자재 조달 비중이 높고 생산된 제품의 제3국 수출비중이 비교적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199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69%이고, 생산제품의 국내반입과 제3국 수출이 각각 24.6%와

〈표 13〉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HS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54	수출	141	291	472	764	960	1,125	921	836	997	766
	수입	26	49	67	107	95	173	148	124	127	99
	수지	115	232	405	657	865	952	773	712	870	667
55	수출	199	344	603	810	914	973	734	624	734	549
	수입	146	253	437	589	441	461	323	375	428	345
	수지	53	91	166	221	473	512	411	249	306	204
58	수출	17	38	60	93	123	134	117	159	209	189
	수입	1	8	3	30	48	57	44	53	55	50
	수지	16	30	57	63	75	77	73	106	154	139
59	수출	29	65	121	196	274	227	240	296	402	366
	수입	1	2	3	5	6	11	8	8	19	22
	수지	28	63	118	191	268	216	232	288	383	344
60	수출	30	63	97	168	264	322	313	320	379	376
	수입	1	5	4	8	8	6	7	6	13	15
	수지	29	61	93	160	256	316	306	314	366	361
61	수출	1	1	7	13	12	12	10	12	14	15
	수입	23	62	127	165	188	232	190	245	419	627
	수지	-22	-61	-120	-152	-176	-220	-180	-233	-405	-612
62	수출	6	26	33	72	98	88	54	49	39	33
	수입	47	99	217	293	400	465	307	403	700	787
	수지	-41	-73	-184	-221	-302	-377	-253	-354	-661	-754
50~63	수출	498	984	1,631	2,427	3,019	3,233	2,644	2,605	3,110	2,633
	수입	395	723	1,222	1,599	1,619	1,858	1,359	1,772	2,383	2,477
	수지	103	261	409	828	1,400	1,375	1,285	833	727	156
29	수출	144	249	388	733	633	761	905	1,250	2,136	1,889
	수입	53	69	131	280	259	257	161	218	276	279
	수지	91	180	257	453	374	504	744	1,032	1,860	1,610
39	수출	362	594	915	1,477	1,661	2,208	2,539	2,241	2,632	2,475
	수입	10	29	35	66	56	80	54	49	80	79
	수지	352	565	880	1,411	1,605	2,128	2,485	2,192	2,552	2,396
기타*	수출	1,618	3,533	4,384	5,656	7,168	8,097	8,907	11,136	15,330	14,427
	수입	1,947	2,039	3,014	4,744	5,577	6,921	4,695	5,778	8,548	8,482
	수지	-329	1,494	1,370	912	1,591	1,176	4,212	5,358	6,782	5,945
전체	수출	2,623	5,360	7,318	10,293	12,481	14,299	14,995	17,232	23,208	21,424
	수입	2,405	2,860	4,402	6,689	7,511	9,116	6,269	7,817	11,287	11,317
	수지	218	2,500	2,916	3,604	4,970	5,183	8,726	9,415	11,921	10,107

주: 1. 중국통계 기준으로, 홍콩 경유분이 포함될 수 있음.

2. HS 50~63은 섬유 및 섬유제품이며, HS29, HS39는 화학섬유 원자재임.

3. * 는 전체에서 상기 예시 품목을 제외한 것임

자료: KOTIS, 중국 '海關統計'

67.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기업의 對중국 투자 축소가 섬유제품 수출 감소의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섬유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들 수 있다. 한·중 수교 초기 중국 진출기업의 섬유제품 판매는 국내반입과 제3국 수출이 각각 14.9%와 73.0%로, 중

국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기존 수출시장의 확보에 주력하였다.¹²⁾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섬유제품의 대외경쟁력 상승으로 중국산 제품이 우리의 기존 수출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1995년과 1998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국 진출 기업의 제3국 시장 수출이 5.8% 포인트 감소한 반면, 국내반입은 9.7% 포인트 증가한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제품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기업의 對중국 섬유산업 투자의 완만한 증가와 중국 섬유제품의 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對중국 섬유제품 순수출 감소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금년부터 섬유 분야의 순수출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던 주요 수출품목들은 인조 필라멘트(HS54), 인조 스테이플 섬유(HS55) 외에 특수직물(HS58), 침투·도포 및 산업용 섬유(HS59), 메리야스 및 편물제품(HS60) 등 섬유 및 직물 중심이다. 반면 수지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주요 수입품목은 완제품인 의류(HS61, HS62)

이다. 더욱이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對중국 주요 섬유제품 수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의류 수입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섬유제품 순수출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표 1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화학섬유 원자재(HS29, HS39)의 對중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HS29, HS39가 모두 화학섬유 원자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 품목 가운데 일부¹³⁾가 화학섬유 원자재로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이들 품목의 상품수지 흑자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⁴⁾ 즉, 상품수지 흑자 기여도가 1993년 7억 7,500만 달러, 31%에서 2001년 1~11월중에는 40억 600만 달러, 39.6%로 8.6% 포인트 증가했다.

나.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산업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는 2001년 11월 말 현재 5,735건에 49억 7,700만 달러이며, 이 중 섬유산업 투자는 1,114건에 6억 400만 달러로 각각 전체의 19.4% 및 1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건당 평

12) 한국무역협회, '중국 투자 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 1995. 3. 1995년의 조사에 의하면, 현지 내수비중은 12.1%로 나타났으며, 1998년의 조사에 의하면, 대외개방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판매비중은 오히려 3.8% 포인트 감소하였음.

13) 유기화학품(HS29)에는 에틸렌글리콜, 아크로니트릴, 나일론 등이 포함되며,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에는 폴리에스테르 등이 포함됨.

14) 우리나라의 對중국과의 교역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는 품목은 유기화학품(HS29),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 이외에 철강(HS72),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HS84), 전기기기·영상과 음향제품 및 부품(HS85), 광물성 연료(HS27), 원피와 가죽(HS41), 종이와 펄프(HS48), 광학 및 계측기기(HS90) 등임. 이 가운데서도 HS85, HS39, HS29, HS72, HS84의 순으로 상품수지 흑자 기여도가 높음.

〈표 14〉 對중국 섬유·의복 업종 투자현황(총 투자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총 투자						섬유·의복 투자						금액 비중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대	중소	계	대	중소	계	대	중소	계	대	중소	
1988~1992	270	34	236	206	83	123	66	7	59	44	7	37	21.4
1993	378	36	342	264	72	192	105	8	97	83	24	59	31.4
1994	841	92	749	632	343	289	193	18	175	104	47	57	16.5
1995	740	91	649	824	483	341	131	11	120	123	55	68	14.9
1996	729	71	658	835	514	321	127	10	117	104	45	59	12.5
1997	622	49	573	639	469	170	117	7	110	50	20	30	7.8
1998	242	19	223	631	546	85	58	2	56	23	7	16	3.6
1999	431	10	421	307	219	88	91	0	91	14	1	13	4.6
2000	695	14	681	307	143	164	116	0	116	16	1	15	5.2
2001(1~11)	787	13	774	332	127	205	110	2	108	43	17	26	12.9
계	5,735	429	5,306	4,977	2,999	1,978	1,114	65	1,049	604	224	380	12.1

주: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 포함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균 투자규모는 54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 87만 달러보다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섬유산업에 대한 對중국 투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중 수교 직후 4년간인 1996년까지는 대부분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에만 4억 5,800만 달러가 투자됨으로서 지금까지의 총 투자액 6억 400만 달러의 75.8%를 차지했다.

섬유산업 투자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투자가 65건에 2억 2,400만 달러로 섬유산업 투자총액의 5.8% 및 37.1%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340만 달러로, 중소기업의 36만 달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 가운데 대기업의 건수 및 금액비중이 각각 7.5%와 60.3%이

고 건당 투자규모도 700만 달러인 점에 비하면, 섬유부문 투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건당 투자규모는 섬유산업에 대한 건당 투자규모와 비슷한 37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지역별 섬유산업 투자는 원·부자재 조달과 수출을 위해 지리적 인접을 고려하여 대부분 연해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섬유산업 투자금액의 무려 83.8%가 산둥(山東)·장쑤(江蘇)·랴오닝(遼寧)·톈진(天津)·지린(吉林) 지역에 투자되었다. 이중에서도 산둥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45.0%로, 중국의 한국 섬유산업 단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의류수입 급증은 완제품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른 부메랑 효과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

<표 15>

우리나라의 對중국 지역별 섬유·의류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지 역	전체		섬유·의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산동성	1,886	1,360	405	272
강소성	301	592	94	89
요녕성	1,061	506	201	58
천진시	532	618	81	47
길림성	576	168	123	40
절강성	136	193	34	26
상해시	223	474	32	20
북경시	324	386	39	12
광둥성	128	200	11	9
흑룡강성	240	147	44	7
기타 지역	328	333	50	24
계	5,735	4,977	1,114	604

주: 2001년 11월말 현재 총투자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제품 교역의 특징은 원·부자재 수출, 완제품 반입 및 제3국 수출의 형태다. 이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완제품 생산기업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고, 이들이 국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가공한 후 그 일부를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섬유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중국 기업이 우리기업의 제3국 시장을 점진적으로 잠식함에 따라 국내 반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의 대응방향

중국의 섬유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섬유제품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2005년부터 쿼터 규제가 철폐되면 중국 섬유제품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중국의 의류 수출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WTO 가입 전 18.5%에서 2005년에는 47.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쿼터가 철폐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섬유제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중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다음 몇 가지 대응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기업의 對중

<표 16>

WTO 가입후 중국 섬유제품의 세계시장 점유비중 변화

단위: %

직 물 의 류	생 산		수 출		수 입	
	가입 전	가입 후	가입 전	가입 후	가입 전	가입 후
	13.9	14.2	8.8	10.6	18.0	25.5
	8.8	20.1	18.5	47.1	1.1	3.7

주: ATC의 섬유제품 과도기가 끝나는 2005년 기준임
자료: World Bank, Business China에서 재인용

국 섬유산업 투자는 여전히 소규모 투자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국·EU 등이 그 동안 쿼터 규제를 통해 중국의 섬유제품 수출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2005년부터 쿼터 규제가 철폐되는 만큼 우리기업들도 기존의 생산시설에 대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쿼터 규제¹⁶⁾ 대상 품목의 제3국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합성섬유와 합성섬유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성섬유(HS54, HS55)와 합성섬유 원자재(HS29, HS39)가 직물 등에 비해 관세 인하폭이 더 크다. 중국은 화학섬유 원자재 및 화학섬유 분야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수출용 의류 생산을 위해 원자재의 5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우리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제품에 대한 대만 기업들의 對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는 확대되는 장식용 직물류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연해지역 등에서는 경제적 여유를 갖는 생활수준(小康)에 달하고 개인의 주택 소유가 확산되면서, 커튼, 소파 등 장식용 직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고급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 직물 외에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장식용 직물 수요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는 직물 등 원단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의 디자인 및 염색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의류 수출보다는 직물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진국 기업들이 디자인 및 염색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직물을 염색 가공한 후,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서 이를 완제품화하여 수출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2000년의 직물 수출이 130억 달러인 데 반해 의류 수출은 73억 달러에

15) 중국의 섬유제품은 미국·EU·캐나다 등 국가로부터 쿼터 규제를 받고 있으며, 쿼터 규제 대상 섬유제품 수출액이 전체 섬유제품 수출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EU·미국 수출의 40%와 13.5%만이 쿼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998~2001년 중 섬유제품 수출액이 연평균 5.5%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의 수출증가액 110억 달러는 주로 한국·일본 등 비쿼터 규제 국가에 대한 수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 관리는 실적배분, 입찰, 신청의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2002년 섬유제품 쿼터품목 192개에 대해 각각 141개, 19개, 32개 품목이 해당됨. 먼저 실적배분 방식은 기업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배분하며, 이 중의 30%는 생산자 기업에 분배함. 입찰 방식은 동 방식 적용량의 30%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며, 나머지 70%는 수의계약에 의함. 수의계약은 다시 세 가지 형태로 구분 배정하는데, 하나는 쿼터를 갖고 있는 기존기업의 전년도 쿼터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40%가 배정되고, 다른 하나는 생산자기업의 입찰 대상 품목의 수출실적에 의거 20%를 배정하며, 마지막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외국인 투자기업 제외)에 10%를 배정함. 신청 방식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당해연도 1~8월 기간 중 쿼터 사용실적이 40% 이하인 품목에 대해, 다음해 수출기업이 수출허가증을 취득하여 수출이 가능하도록 신청 대상 품목을 당해연도 9월에 공표하여 기업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은 쿼터 배분 방식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쿼터를 배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불과하였다.

다섯째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대외개방 확대, 인터넷 보급 및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 완화¹⁷⁾ 등에 따른 해외정보의 신속한 접근으로 의류도 점진적으로 개성화 조류를 타고 있는데, 상하이 등 연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단·색상·스타일 등에서 개성미가 점차 가미되고 있다. 이러한 개성화 조류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급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중·저가품의 경우 중국 내자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개성있는 상품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는 실크, 면화 등의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실크, 면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현지에서 방적·방직 등의 공정을 거쳐 국내에 반입하여 디자인, 염색 가공 등을 거친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완제품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의 국내산 면화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는 톤당 280달러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1999년 9월 면화의 독점적 구매와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여전히 구매 및 판매합작사(供銷合作社)로 하여금 면화에 대한 구매와 판매를 전담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면화 수입에 대한 쿼터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구매 및 판매합작사에 대한 정책적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대출한 은행들은 이

의 회수를 위해 면화의 고가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중국시장 가격과 국제시장 가격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면화에 대한 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를 철폐해야 됨에 따라 수입 면화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늦어도 과도기가 끝나는 2005년부터는 방적기업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면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VI. 맺음 말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세계은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산 의류가 세계시장의 절반 가량을 잠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와 함께, 우리의 디자인 및 염색 가공 기술에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결합시킬 경우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의류에 포함되어 수출할 기회도 있다.

이제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틀을 완전히 벗고 시장경제체제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비단 외관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제도,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경제관료와 기업인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

17) 중국 정부는 그 동안 방문국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해외여행을 허용해 왔으나, 금년 2월부터 이를 완화하여 초청장이 없더라도 개인의 해외여행을 허용키로 하였음.

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시장경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

섬유제품은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의 주된 수출상품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시장에 등장하면서 우리 섬유제품은 점차 중국 제품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했고, ATC 협정에 의거 선진국들이 그 동안 자국 섬유산업 피해를 위해 취했던 쿼터 제도도 철폐하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저임노동력이 풍부한 중국과의 지리적으로 인

접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의 패션에 대해 점차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우리 문화(韓流)에 대한 관심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화학섬유 생산, 디자인·염색가공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과거 섬유제품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김주영, '한·중 교역상품 분석을 통한 경쟁력 비교와 향후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0. 9.
2. 대한상공회의소와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실태와 애로요인', 1998. 6.
3. 산업연구원, '섬유산업의 경쟁국·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과의 협력 및 경쟁력 확보방안', 2000. 12.
4. 산업자원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WTO 섬유·의류 협정문(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2001. 5
5. 한국무역협회, '중국 투자 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 1995. 3.
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纖維協定の 理解(Understanding of ATC)', 2001. 11.
7. 國家信息中心編, '2000中國經濟展望(下)', 中國計劃出版社, 1999
8. 中國海關總署, '海關統計'
9. EIU, Business China: Fashion wars, 2002. 1. 7.
10. www.ced.com.cn
11. www.china.org.cn
12. www.kotis.co.kr
13. www.dreinet.com.cn
14. www.economicdaily.com.cn
15. www.moftec.gov.cn
16. www.people.com.cn
17. news.xinhuanet.com